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4.07.17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6월 유럽선거에 따른 새로운 유럽연합 행정부 구성 주요 일정

- 새롭게 선출된 유럽의회는 7월 16일부터 임기를 시작, 19일까지 사무국 (Bureau) 선출(의장, 부의장 14명 등) 및 위원회(Committee) 구성을 개시
- 이에 지난 7월 16일 유럽의회 의장 Roberta Metsola는 여성 최초로 재선에 성공
-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(ITRE)의 경우 총 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위원회와 더불어 유럽의회 위원회 중 가장 큰 규모
- 오는 7월 19일까지 새로운 EU 집행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집행위원단이 지명되어 오는 10월~11월 중에 선임될 예정

○ G7, 개방되고 안전한 국제 과학 협력 강화에 합의(7.11)

- 지난 7월 9일~11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과학기술장관회의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있어 과학·기술·혁신·고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
- G7 국가 장관과 이바노바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은 우크라이나의 연구혁신 생태계를 지원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연구보안 및 연구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식, 과학 분야의 책임 있는 AI에 대한 접근법과 대규모 연구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

○ 한-EU, 이종집적화 및 뉴로모픽 컴퓨팅 기술에 초점을 맞춘 4개의 반도체 공동연구 프로젝트 선정(7.17)

- 향후 3년간 진행될 4개 프로젝트에는 EU가 총 600만 유로를 지원하며 한국연구재단(NRF)도 비슷한 금액을 지원

- (ENERGIZE) 에너지 효율적인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2차원 소재를 사용하여 뇌와 같은 회로를 개발
- (NEHIL) 정확한 거리 측정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통합하는 레이저 기반 레이더 시스템(LIDAR) 제작
- (HAETAE) AI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기능에 적응할 수 있는 광자 두뇌형 칩 개발
- (VITFOX) 강유전체 재료를 사용하여 전력 절약 및 성능 향상을 통한 시각적 데이터 처리 AI 향상

- 이번 파트너십은 반도체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양 지역의 선도적인 연구자 및 기관 간의 강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

- (기타) ▲우크라이나 호라이즌 유럽 사무소, EU와 긴밀한 연구협력 방안 모색(7.9)
▲EU 해양 및 수질 복원 미션, 26개 신규 프로젝트에 1억 2,690만 유로(7.12)
▲ERC, Proof of Concept 2024 보조금 수혜자 발표(7.11)